

---

# 완전사이버 강의의 개선을 위한 방안 : 교수자 제안을 중심으로

이승원\*

## A Study to Improve Full - Cyber Lectures : with Focus on Instructors' Proposal

Seung-Won Lee \*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 강좌 중 사이버 위주, 사이버 중심의 완전사이버 강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재직하는 B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면대면 중심의 일반 강좌, 그리고 부분사이버 강좌와 비교한 완전사이버 강좌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을 비교하고, 완전사이버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2011~2012학년도 4학기 동안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은 완전사이버 강좌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4학기 내내 일관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분사이버 강좌의 경우는 면대면 강좌와 같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결국, 15주 내내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완전사이버 강좌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들과의 설문과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완전사이버 강좌의 운영을 위해서는 60명 선에서의 수강인원의 제한과 초과 시 전문조교 지원, 콘텐츠의 수시보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협력체제, 교수자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학습 분량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노력 등이 우선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완전사이버 강좌, 부분사이버 강좌, 강의평가 점수, 교수자 제안, 전문인력 지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partial-cyber and full-cyber lectures and explo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compared the mean scores of course evaluation for traditional face-to-face lectures, partial-cyber lectures of blended instruction, and full-cyber lectures. Also, this study interviewed instructors of full-cyber lectures to investigate the ways to enhance the lecture qua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urse evaluation scores for full-cyber university were consistently lower than those for other types of lectures for four semesters between the years of 2011 and 2012. Results also showed that mean scores of partial-cyber lectures were the same as those of face-to-face lectures. After all, class satisfaction in full-cyber courses that learning occurs in cyber space was the lowest. Instructors who taught full-cyber lectures proposed that enrollment should not be within 60 students and professional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for lectures exceeding 60 students. Finally, they suggested content updates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with professionals, instructors' efforts to enhance interaction in both online and offline contexts, and learning quantity rationalization.

**Key Words** : Full-Cyber Lectures, Partial-Cyber Lectures, Course Evaluation Scores, Instructors' Proposal, Professional Assistance

---

### 1. 서론

정보화 사회, 디지털 환경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켰다. 교육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사이버 교육의 보편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수업운영도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인 교실 수업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논문접수: 2013년 3월 1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4월 15일, 확정일: 2013년 4월 20일

과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교육으로 크게 대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등장과 확장추세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초·중등교육이나 대학들에서도 사이버 교육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연시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흐름과 추세와는 다르게 사이버 위주의 교육, 사이버 강좌의 교육적 실효성,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분분한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본다면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의 면대면 수업에 비해 사이버 위주의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나 학업만족도가 낮다는 최근의 결과들[5][6][10][7]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이버 강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대면 수업과 조화를 이루어 실시되거나 사이버 수업에 오프라인 상호작용 도구가 적절히 매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위주의 강의에서 블렌디드 러닝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는 사이버 강좌 중 사이버 위주, 사이버 중심의 완전사이버 강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재직하는 B대학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 2.1 사이버 교육의 의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 하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활동으로 사이버교육을 들 수 있다. 사이버 교육(Cyber Education)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각종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기반의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첨단 교육환경을 말한다[2].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와 지식의 위상을 극대화하였고 전 지구적 삶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

다.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관의 틀 자체를 변화시킬 만큼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민승[11]은 인터넷이 가지는 기존의 교육관/틀 자체를 변형시키는 힘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인터넷은 그간 객관주의적 지식관으로 대별되어 왔던 학교에서의 지식관에 근본적인 변형을 가져왔다. 기존의 교육은 진리로 판명된 지식을 인지적 차원에서 전수하는 일이며, 지식의 현상형태도 책으로 대표되는 근대의 매체가 갖는 질서정연함, 순차성, 단선적 배열 등을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하이퍼텍스트는 책의 선형성과 일관된 논리성을 벗어나 사용자의 관심주체에 따라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학습자의 선택권 확보를 강화시키며 인쇄된 텍스트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감식력이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둘째, 인터페이스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선형적 매체의 논리정보보다는 멀티미디어 화면의 미적 특성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내용보다는 형식이, 논리적 일관정보보다는 즉자적 관심이 우세하게 되는 문화가 일반화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익명적 관계의 만남의 방식을 통해 관계가 아닌 메시지 내용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불특정 다수가 서로 동시에 소통하는 다방향 소통(multi-way communication)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언제든지 반박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가르칠 내용’이 거의 미리 정해져 있고, 보장되어 있는 교사의 제도적 권위에 의해 학습자의 의견표명이 어려운 학교교육의 일방적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넷째, 정체성의 실험 역시 자유롭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험하며, 다양한 정체성 간의 긴장과 경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학습자들이 일방향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 교육주체로서 상호성의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교육은 이처럼 기존의 교사 중심의 지식전달식 일방적 교육 방식, 논리중심, 인지중심,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텍스트 중심의 고정된 내용

접근의 한계 등을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학습자의 자유로운 세계 탐색의 기회를 확장시키며, 정보에 대한 감식력을 키우고 다양한 소통과 상호성 체험을 통해 학습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적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무한정한 인터페이스의 바다를 향해하면서 스스로의 방향을 잡아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구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교육의 긍정적인 기대와 교육적 변화추세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지식정보화교육의 강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적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들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교육에 활용하여 미래를 대비한 교육 개선 핵심사업의 하나로 스마트 교육전략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1].

## 2.2 사이버 교육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교육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은 지나친 낙관적 접근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냉철한 현상파악과 현실 인식, 그리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교육현장에 사이버위주 교육에 대한 확실한 효율적 결과가 어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은 개별적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업에서 긴장과 불안, 소외감을 가지기 쉽고, 특히 고령자나 주부와 같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다[5]. 물론, 사이버 교육의 효율성이 면대면의 전통적 수업에 비해 높지 못하다는 결과들이 곧 사이버 교육 본래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이버 강좌의 특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 그리고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교수자의 문제, 그리고 충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환경적 변인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습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학습시간 관리와 평가까지 가능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2]은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교수자들의 수업설계와 수업활동의 능률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풍부한 온라인 강좌의 운영 경험이 많을수록, 정규시

험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비중을 높이고 수강생의 질문에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공지사항과 질문답변 코너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수록 강의평가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8]나, 사이버대학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참여 내용을 계획할 시 출석과 토론, 강의실 참여, 학습진도, 자료게시판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범위와 분량의 학습 참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1]는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 3.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먼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B대학의 사이버 강좌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2011년~2012년 4개 학기 동안 개설되었던 전공교과목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을 가지고 완전사이버 강좌, 부분사이버 강좌, 그리고 오프라인 강좌에 대한 학생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완전사이버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7명의 교수자들에게 설문 및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점 및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4. 완전사이버 강좌의 개선 방안 모색

### 4.1 완전사이버 강좌 현황

우리 대학 전공교과목의 사이버 강좌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공교과목의 운영 현황

구분 \ 학기	2011-1	2011-2	2012-1	2012-2	비율
	강좌수	강좌수	강좌수	강좌수	
일반 강의	1,496	1,508	1,603	1,618	94.1
완전 사이버	11	9	10	10	0.6
부분 사이버	87	78	84	99	5.3

전공교과목은 크게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인 일반 강의, 완전사이버 강의, 부분사이버 강의로 구분되며 완전사이버 강좌는 전체교과의 0.6%, 그리고 부분사이버 강좌는 5.3%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강좌로 운영되는 전공교과의 비율이 5.9%로 그다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완전사이버 강좌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사이버 강좌로 운영되는 전공교과목의 수가 미미하다는 것은 교과목 운영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교수들에게 있어서도 완전사이버 강좌 운영은 설계와 운영 및 관리 모든 면에서 많은 부담이 동반되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강의평가점수가 교수업적평가로 이어지고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대학의 경우도 면대면 오프라인 강좌에 비해 사이버 강좌, 특히 완전사이버 강좌는 학생의 만족도나 성취도에서 더 낮을 것이며, 이는 곧 강의평가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 4.2 사이버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

우리 대학의 강의평가는 학기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교과 교수자의 강의 평가를 해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강의평가 문항은 교과목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7가지 유형(전공, 교양, 교직, 현장실습, 개인실기지도, 부분사이버 강좌, 완전사이버 강좌)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중 현장실습과 개인실기지도의 경우 평가만 실시할 뿐 교수의 평가점수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의평가 문항은 크게 교수법에 대한 평가, 학업성취 정도에 대한 평가, 강의 전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타 강좌수강 소감 및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교수법관련은 유효성 측정 포함 6~8 문항, 학업성취 정도는 3 문항, 강의 전반 관련하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유형별 강의평가점수 평균

구분 \ 학기	2011-1	2011-2	2012-1	2012-2	전체 평균
일반 강의	3.95	3.98	3.92	3.97	3.96
완전 사이버	3.72	3.80	3.76	3.77	3.76
부분 사이버	3.90	4.02	3.98	3.94	3.96

전공교과목 관련 강의평가 문항의 경우, 오프라인의 일반 강좌, 완전사이버 강좌, 부분사이버 강좌 모두 표현만 조금 다를 뿐 학생 관심 자극, 친밀한 관계 형성, 학생 참여 독려, 수업활동 구성 등 강의 성격에 맞추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문도록 구성하여, 강의 유형에 따른 오차 변인을 없애고자 하였다. <표 2>는 2011-2012년 4학기

동안의 강의평가결과이다.

<표 2>에 나타났듯이 4학기 동안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은 완전사이버 강좌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4학기 내내 일관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사이버 강좌의 경우는 오프라인 상 면대면 강좌와 같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결국, 15주 내내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완전사이버 강좌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들 [5][6][9]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한 부분사이버 강좌의 경우는 면대면 강좌에 비해서 4학기 내내 차이를 보이지 않는 높은 강의평가결과를 보임으로써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분사이버 강좌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조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3][9][10][13]의 연구결과와 제안들을 확인시켜주었다.

#### 4.3 완전사이버 강좌의 개선을 위한 교수자 제안

완전사이버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들 모두는 완전사이버 강좌 수업의 강의평가가 다른 강의유형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마음의 부담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사이버 강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강의평가의 부담이 커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교수자들은 완전사이버 강의의 학생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들 간의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가장 먼저 꼽았으며, 학생들의 자기관리, 자기통제 등 주도적 학습 능력의 부족, 많은 수강 인원, 1회 학습 분량 조절의 어려움, 온라인 경력의 미흡에 따른 수업 설계와 운영의 미숙 등을 들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점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점들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향후 완전사이버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수강 인원 제한과 조교인력 제공

완전사이버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너무 많은 수강인원을 제한하지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현

제의 경우 완전사이버 강좌의 수강인원 제한은 90명으로, 오프라인 면대면 일반 강좌의 수강인원 제한인 60명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 강좌처럼 완전사이버 강좌의 경우도 수강제한 인원을 6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부득이 현행의 수강제한 인원을 유지할 시,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서 강의의 전반을 관리해줄 전문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완전사이버 강좌의 경우 담당 교수자에게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일이 관심을 쓰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이 발생하게 됨으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판단이 든다.

## 2) 콘텐츠의 수시 보안을 위한 전문 인력의 협력 체제

교수자들은 효율적인 완전사이버 강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의 수시 변경과 보완 등 업그레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강의콘텐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e-러닝 분야 전문 인력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경우 교수학습개발원의 e-러닝업무를 전담하는 2명 전담 직원과 4명의 조교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강의콘텐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원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간접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공학을 전공한 박사급 전문 인력을 충원한 상태라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상호작용에 의한 피드백 활성화

교수자들은 학습자들과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수업설계와 수업활동에 상호작용을 이끌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구상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경우 사이버 강좌는 물론 일반 강좌들의 경우도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의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학생들과의 온라인 접촉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모든 강좌마다 공지 사항, 질의응답, 자료실, 과제를 위한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고, 효율적인 강의관리를 위해 게시판관리, 토론관리, 과제관리, 시험관리, 설문관리, 출석관리, 오프라인시험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특히,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학생들의 질의 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교수들에게 SMS 공지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게시판도 개설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결국, 교수자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면담을 통해서 완전사이버 강좌 담당교수자들 모두 게시판을 더욱 더 활용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었다.

## 4) 학습 분량의 조절

교수자들의 일부는 학생들에게 1회 학습 분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학습 분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사이버 강의 수강 시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1회분 학습량이 벅찬 것이었다는 기존의 연구[4] 결과처럼, 적절한 학습 분량의 조절은 완전사이버 강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강의자 스스로가 설문관리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맞는 적정량의 학습 분량을 조절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활용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식으로라도 오프라인을 통한 면대면 만남의 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완전사이버 강좌의 성격상 쉽지 않다는 문제였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신청하여 강의실을 배정받을 경우, 완전사이버 강좌 수강들을 위한 강좌 개시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수시고사나 기말고사 시 오프라인 시험시간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의 시간, 날자를 공지하고 들어가서 학생들과의 화상면담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완전사이버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들 모두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 5. 결론

지식정보화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는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강의실의 부족 등 대

학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강좌의 활성화는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현실을 보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제적 학습만족도나 성취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들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특히, 완전사이버 강의의 경우 학습자들과의 소통의 부족, 학습자들의 자기관리, 자기통제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B대학의 경우, 완전사이버 강의는 오프라인 면대면 강의나, 부분사이버 강의에 비해 2011~2012학년도 4학기간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에 있어서 일관되게 낮게 나왔다. 그에 비해 부분사이버의 경우는 일반 강의와 4학기 내내 점수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향후 완전사이버 보다는 부분사이버 강좌의 증대, 그리고 블렌디드 강좌 운영의 확대 필요성을 예측해준다고 볼 수 있다.

완전사이버 강좌의 개선을 위한 교수들과의 설문과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완전사이버 강좌의 운영을 위해서는 60명 선에서의 수강인원의 제한과 초과 시 전문조교 지원, 콘텐츠의 수시보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협력체제, 교수자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학습 분량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 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노력 등이 우선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완전사이버 강좌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일반 강좌, 부분사이버 강좌 등과 포괄적으로 비교하였지만, 특정 강좌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향후 교수자들의 제안이 반영된 상황에서 완전사이버 강좌에 대한 강의평가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후속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참 고 문 헌

[1] 강민석·김진일·박인우(2009). 사이버대학 e-러닝환경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참여 변인 규명. 인터넷정보학회 논문지, 10(5), 135-143.  
 [2] 강우중·김충원·이준(2010). 사이버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2), 304-306.  
 [3] 김은길·강남철·김종훈(2010). 사이버가정 학습 활성화 방안 - 제주 e-study 2.0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451-460.

[4] 박명숙(2007). 학습자 입장에서의 사이버 강의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학에서 소비자 교육 분야의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4), 257-271.  
 [5] 심선경(2012). 온라인수업에서 학습도구와 학습성취, 학습만족도간의 관계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3), 487-497.  
 [6] 안종목(2008). 사이버 강좌의 효율적인 학습 방안 요인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면대면 강좌와 사이버 강좌의 학습효과 비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3), 85-124.  
 [7] 윤현상·김상곤(2001). 협동학습이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자아 존중감 및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13(2), 194-211.  
 [8] 이은길(2012). An Exploration of effects of instructor characteristics on the course evaluation results in an online university.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권(3), 273-291.  
 [9] 이현주(2012).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대학생 영어학습에서의 상호작용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1), 1-24.  
 [10] 이해란·이연숙(2009). 교사의 면대면 수업과 사이버 가정 학습의 학습 효과 비교 - 중 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청소년과 소비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2), 139-158.  
 [11] 임희석·유길상(2012). 스마트 교육을 위한 세계의 ICT 활용 동향.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0(1), 37-43.  
 [12] 정민승(2007). 디지털 시대의 교육학의 자기변모: 그 특징과 한계. 교육학연구, 45(3), 53-80.  
 [13] 허희옥(2000). 강의 위주의 교실수업과 사이버 공간의 통합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 탐색. 교육과정학연구, 31(1), 131-152.

## 이 승 원(Seung-Won Lee)



· 1885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887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1995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한국교육사상, 교수법  
 · E-Mail : seungwon@bu.ac.kr